



13. 정신의 음료

① 차(茶)의 신화

태양이 솟아오르고 봄기운이 무르익으면 나무들은 오랜 겨울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새싹을 피운다. 온화한 훈풍과 토질은 맑고 투명한 녹색의 향기로온 영초(靈草)를 피운다. 사람들은 이런 자연의 이치를 부여받아 함께 살아간다.

태초부터 만물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양식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제로 사용되었다. 식물의 발견과 이용은 사람들의 인식 변화와 함께 사회적 필요 요건에 의해 발전의 단계를 거치며, 시간과 공간 속에서 전통적 개념이 생기기 되었으며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었다.

기록된 문헌이나 구전에는 청림

험하였는데 하루는 끓는 물에 약초를 넣기 위해 숲속을 열자 하늘에서 서너 개의 나뭇잎이 숲 안에 날아들어, 끓는 물속에서 상쾌한 향기가 천천히 퍼져 나갔다고 한다. 또한 맛은 쓰고 떫고 뒷맛은 단맛이 있었으며, 몸에는 이상한 기운이 돌며 피로가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한다. 신농은 이 나뭇잎을 찾아 산야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그는 숲에 떨어졌던 잎과 똑같은 차나무를 발견하였다. 차가 곡식과 치료의 신인 신농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상징성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만큼 중국인에게 차는 생활필수품과도 같은 것이다.

차에 대한 전설로 6세기경 달마 대사(達摩大師)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달마는 남인도 향기국의 왕자로 중국에 불교를 전하러 왔다. 달마는

중국 약서 '신농본초경'서 茶神 '신농' 소개 달마 대사 일화는 차와 불가(佛家) 인연 다뤄

한 재상(宰相), 신선(神仙), 고승(高僧), 학식 높은 인물 등이 차를 즐겼다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이런 선인(先人)들의 차 이야기들은 그



신농이 곡식 재배법을 전수하고 있는 그림.

중국의 소림사에서 무술을 익히며 무예를 장안하기도 하였으며 오늘날 우리가 참선이라 고 하는 수행법을 소개했다. 대사는 벽을 보고

들의 삶과 생활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본래 차나무에 대한 기원은 인도와 중국에 두고 있지만 차의 활용에 서는 중국에서 찾아보는 편이 옳다. 중국의 오래된 약서(藥書)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의하면 "신농(神農)은 수백 가지의 풀을 맛보고 약효를 시험하다가 하루에 72가지의 독을 만났으나 차로 해독하였다"하여 신농 때부터 차를 마셨다는 전설이 있다. 신농은 고대 중국의 신화 속에서 생명을 주는 신으로, 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고 있다. 곡식을 심어 인류에게 농사짓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며, 열기를 내뿜어 오곡이 자라도록 하였다.

의약의 신이기도 한 신농은 체질을 가지고 여러 약초들을 채취하여, 특성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한성(寒性)인지 열성(熱性)인지 알아내어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었다. 또한 약초를 직접 복용하여 실

아서 움직이지 않고 명상에 잠겼는데 처음에 제자들은 스승을 따라하다가 꾸벅꾸벅 졸았다. 이를 본 대사가 자기의 눈꺼풀을 떼어서 마당에 던지자 거기에 차나무가 솟아나 이 나무의 잎을 끓여 먹은 제자들이 정신을 차려 수행에 정진했다는 전설이 있다. 이때부터 차는 불가(佛家)의 수행음료가 되었다. 차가 단지 잠을 쫓는다는 사실보다는 자기의 눈꺼풀을 잘라내어 제자들이 수행할 수 있게 한 달마의 자비심이 더 돋보이는 장면이다.

이런 달마 대사의 일화는 차가 불가에서 특별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한다. 차를 마심으로 깨어있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는 불가의 음료가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차 문화는 이제는 상징성을 뛰어넘어 인류의 삶 속에서 다양한 의미로 자리하고 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도서의 계절 가을이다 차에 관한 서도 가을을 맞아 차 관련 책들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계간 <차와 문화> 창간호와 차명상 이론을 정리한 <차명상>, 100여 가지 중국차를 사진으로 찾아볼 수 있는 <사진으로 보는 중국의 차> 등 눈에 띄는 신간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본다.

독서의 계절

책으로 차를 즐겨라

최근 선보인 계간 <차와 문화>는 '올바른 차 생활 가이드'를 표방하는 잡지다. 전문가 보다는 차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여천차문화연구원 김대철 원장이 편집인인, 한국발효차연구회 박희준 소장이 주간을 각각 맡았다.

김대철 편집인은 "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초보자들이 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며 "대중들의 차에 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차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차와 문화>의 창간 목표"라고 설명한다.

창간특집호인 2006년 가을호는 분량만도 250여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 번째 장은 해남 대흥사 일지암과 강진 다산초당, 진도 운림산방 등 우리 차문화를 꽃피운 현장들을 탐방한 "자연"을 담아낸 아름다운 우리 차살'로 꾸며졌다. '월빙 시대, 우리 차의 현황'에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차 문화 현실을 짚어보는 최담과 박희준 소장의 진단과 제언 등이 담겨 있다. 이어 건강·명상·음식 등 다채로운 차 문화를 소개한다. 도서 출판 이문아침, 값 1만2천원.

안길백차, 대흥포, 백호은침, 철라한... 낯선 차 이름 때문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사진으로 보는 중국의 차>(형설)를 펼쳐 보자.

"중국차 도감"이라는 부제에서도 보듯 중국에서 생산되는 100여 종류의 차를 사진으로 엮은 책이다. 동양차도구연구소 박희관 소장이 4년에 걸쳐 중국과 대만의 차산지 곳곳을 견학하며 찍은 차 사진을 가려 담았다. 박 소장은 "대학에서 차도구에 관한 강의를 하다 보니 차문화의 중심인 '차' 자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차 전문가

는 아니지만 차의 종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도감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책을 펴내게 됐다"고 말한다.

중국 유명 차 산지에서 차 제조과정을 확인하고 중상급 이상의 차를 가려 마트 찾았과 차, 우려낸 탕색, 우려 후의 찻잎을 사진에 담았다.

한편 지난 50여 년간 생산된 수많은 종류의 차 샘플을 보관하고 있는 중국 호남성의 한 다창을 견학한 후 "우리 차에 대한 기록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되짚는 등 현장에서 느낀 문제의식도 함께 곁들여 읽는 맛을 더한다. 박 소장은 앞으로 세계의 차문화 속에서 우리 차의 존재가치와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세계의 차>(가제)도 펴낼 예정이다. 형설출판사, 값 2만5천원.

<차명상>(차와사람)은 지난해 초차명상원을 개설한 지장 스님이 명상 이론과 실재를 정리한 '차명상 교재'다. 차명상은 차를 마시는 행위와 감각을 관찰함으로써 자각력, 집중력, 통찰력을 개발하는 수행법이다. 지장 스님은 "차 명상은 차가 가진 효능과 기능이 시너지효과를 내므로 일반 명상법 보다 '나'를 느끼고 지켜보기가 훨씬 쉽다"고 말한다.

미얀마에서 직접 명상수행을 체험하며 차명상 원리와 이론을 연구한 데 더해 지난 1년 여간 차명상을 지도하면서 겪은 시행착오가 책의 든든한 밑거름이 됐다. 바쁜 직장인들이 이 책 한권만으로도 차명상 이론을 익히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명상'의 기본 원리와 의의에서부터 차명상 이론과 실천방법, 차명상을 응용한 다양한 명상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차와사람, 1만2천원.

여수형 기자 snopy@buddhapia.com



<차와 문화> 초보자들 위해 차 정보 가득

<사진으로 보는 중국의 차> 중국차 100여종 사진과 함께 담아

<차명상> 명상 이론과 실재 정리한 교재

명선가, 우리쌀로 만든 다식 '차와 함께' 출시



김창배 화백 대화, 포장지에

(주)명선가대표 한재욱)가 우리 쌀을 원료로 만든 다식 '차와 함께'를 출시했다.

'차와 함께'는 우리 쌀에 녹차, 송화, 도라지 등의 지역특산물을 첨가해 오븐에 구워낸 비스킷으로 담백한 맛이 특징이다. 한 대표는 "현대인의 건강과 우리 농민의 자립을

돕는 친환경 과자"라며 "찾자리에서나 등산, 낚시 등의 야외활동시의 간식으로 적합하다"고 말한다.

"차와 함께"가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찾자리 그림으로 유명한 김창배 화백의 대화(茶話)를 이용해 포장지를 꾸민 '문화 컨셉트 상품'이라는 점이다. 우리 찾자리 그림이 상품을 통해 해외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명선가는 전국 1000여개 한양방과 대형할인매장 등을 통해 '차와 함께'를 보급할 예정이다. 30g 10봉에 7000원.(070)7012-3901

보이차 전문점

진년보이·진년오롱·철관음·오롱차
대흥포·화차·인삼오롱 등 40여가지의 차

瑞榮普洱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머리를 걷게 하여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신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긴다.

"실험 사례" 폐 식염수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된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수제화로 제작 滿 行 靴 化

성표등록 : 614981호

■ **소재특징** : 방수 쿠셔시 원단, 논슬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털 깔창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

최고의 선물

건강 슬리퍼

지압형인 실리콘 밑창, 특수발원단

- 가격 : 60,000원
- 규격 : 225-285mm (논슬립우레탄)
- 색상 : 회색, 흑색

등은 짚

만행 표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과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닥 깔창은 특수 원단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의 발관리에 도움을 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용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주문전화 : 02)927-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지민)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전국매장

•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산승복 062)228-2870
• 대전 : 불교화점 042)274-3727 •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정우 천연 무공해 황토방 시공

스님들의 수행공간이나 침실방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는 천연 순100% 황토로 황토방을 마음으로 시공하며 순 100% 천연황토가 아니면 시공비를 전액 받지 않겠습니다.

1. 황토방은 노화방지 및 혈액순환 촉진 스트레스 해소 만성피로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2. 황토방은 신경통 요통 아토피질환 알러지 비염 기관지 천식에 효과적입니다.
3. 황토방은 원적외선 온돌효과로 난방비가 절감되며 인체내의 나쁜 과산화지질을 중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천연황토는 실내공간의 악취제거와 습도조절에 효과적입니다.
5. 황토방은 건축물의 개 보수 및 사후관리가 용이합니다.

황토방, 인테리어 시공전문
정우 천연 황토산업
대표 정우철 합장

광주광역시 동구 윤림동 96번지
전 화 062)226-4445
팩 스 062)234-1286
핸드폰 011-607-9828
email : bestceo12@naver.com